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2차 신학포럼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10:00~13:00
- 장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50)
- ※ 등록비 무료, 자료집과 점심식사 제공

발표 1 : 이건수 박사

- 한국 장로교 예배의 미술, 이미지, 상징의 사용에 대한 재고: 실천신학적 연구
- Revisiting the use of art, imagery and symbolism in the Presbyterian liturgical tradition in Korea: a practical-theological research



-현재 개포동교회 부목사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B.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Stellenbosch University (Th. M.)
Stellenbosch University (Ph. D.)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에서 미, 상상, 육체와 감각들, 그리고 미술과 같은 시각적 영역의 심미적인 요소들은 무시되어왔다. 그것들은 '말씀의 종교'를 표방한 개신교 신학, 신앙과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저자는 그의 논문에서 이런 그릇된 이해를 바로 잡고자 한다. 그는 미학에 신학적 소명이 있다고 말한다.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 그것이 정신적인 이미지이든 물리적인 이미지이든 간에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본유적 속성이다. 따라서 미학은 신학적 담론의 파트너, 우리의 신학적 활동의 또 하나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발표 2 : 지창현 박사

- 현대 교회 설교 흐름에 관한 연구
- Course of Preaching in Modern Church



-현재 두레교회 부목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아세아학과 (B.A.)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Th. M.)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Th. D.)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경적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작업은 현대 교회의 설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현대 교회 설교의 흐름을 연구하게 되었다. 현대 교회 설교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흐름은 첫째 개인의 자아를 지나치게 강조한 개인주의 설교, 둘째 공적신앙이 약화된 신앙의 사유화 설교, 셋째 성장주의 설교, 넷째 그리고 사회 윤리를 상실한 설교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현대교회의 설교가 이 네 가지 설교의 흐름을 극복 할 때, 그 설교는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조명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